



J TRUST

2019년 12월 결산 1분기

결산설명자료

2019년 8월

Jトラスト株式会社

2019년 12월 결산

1. 1분기 연결결산개요
2. 1분기 부문별 실적
3. 실적예상 및 진척상황
4. 사업별 향후 전망

- 결산기의 변경으로 금번 결산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9개월입니다.
- 2019년 3월기에 매각한 하이라이츠엔터테인먼트사의 실적을 비계속사업으로 분류했으며, 전년동기 「영업수익」 「영업이익」 및 「세전이익」도 마찬가지로 분류하여 표시했습니다.
- 본 자료에 기재된 미래 정보 등은 자료 작성 시점의 당사의 인지, 의견, 판단 또는 예측에 따른 것으로 그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실적이나 결과와는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양지 바랍니다.
- 설명회 및 본 자료는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 또는 자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각 페이지에 기재된 수치는 표시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표시했습니다. 또한 표와 그래프 옆에 기재된 차이와 전년동기대비 등은 억 단위로 표시, 계산했습니다.

1. 연결결산개요

재무부 부부장
시마무라 케이치

➤ 연결실적개요

일본금융사업

신용보증업무와 채권매입 회수업무는 안정세

한국 및 몽골금융사업

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감소와 NPL매각이익 등으로
영업이익 온기계획 달성을 76%

상기 2개 사업이 연결실적 견인

➤ 전년동기대비 매출증가 이익감소

연결실적(전년동기대비)

	Q1 FY03/2019 (2018/4/1~2018/6/30)	Q1 FY12/2019 (2019/4/1~2019/6/30)	차이
영업수익*	173억엔	182억엔	+9억엔
영업이익*	8억엔	4억엔	-4억엔
세전이익*	19억엔	1억엔	-18억엔
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	14억엔	- 1억엔	-15억엔

* 영업수익·영업이익·세전이익의 경우 비계속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.

➤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의 M&A에 따른 수익증가

부문별 영업수익(전년동기대비)

	Q1 FY03/2019 (2018/4/1~2018/6/30)	Q1 FY12/2019 (2019/4/1~2019/6/30)	차이
일본금융사업	23억엔	23억엔	-0억엔
한국 및 몽골금융사업	101억엔	97억엔	-4억엔
동남아시아금융사업	31억엔	27억엔	-4억엔
투자사업	2억엔	2억엔	-0억엔
비금융사업 (엔터테인먼트/부동산)	12억엔	30억엔	+18억엔
기타사업	2억엔	1억엔	-1억엔
연결영업수익	173억엔	182억엔	+9억엔

비계속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.

➤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이 동남아시아 금융사업을 커버

부문별 영업이익(전년동기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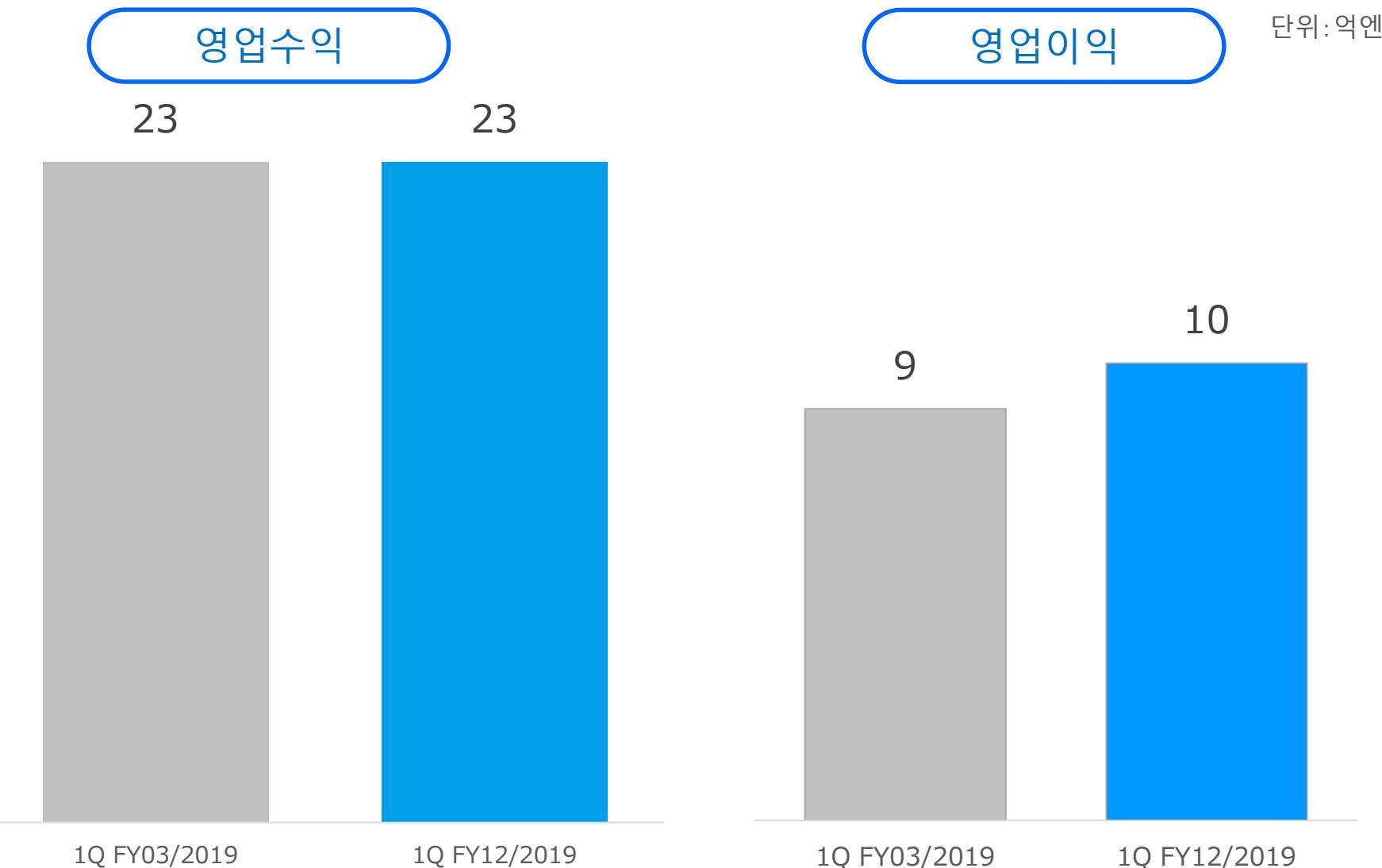
	Q1 FY03/2019 (2018/4/1~2018/6/30)	Q1 FY12/2019 (2019/4/1~2019/6/30)	차이
일본금융사업	9억엔	10억엔	+1억엔
한국 및 몽골금융사업	14억엔	25억엔	+11억엔
동남아시아금융사업	-7억엔	-18억엔	-11억엔
투자사업	1억엔	-5억엔	-6억엔
비금융사업 (엔터테인먼트/부동산)	-0억엔	0억엔	0억엔
기타 사업	-0억엔	-1억엔	-1억엔
(조정액 등)	-10억엔	-6억엔	+4억엔
연결영업이익	8억엔	4억엔	-4억엔

비계속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

2. 부문별 실적

2 - 1. 일본금융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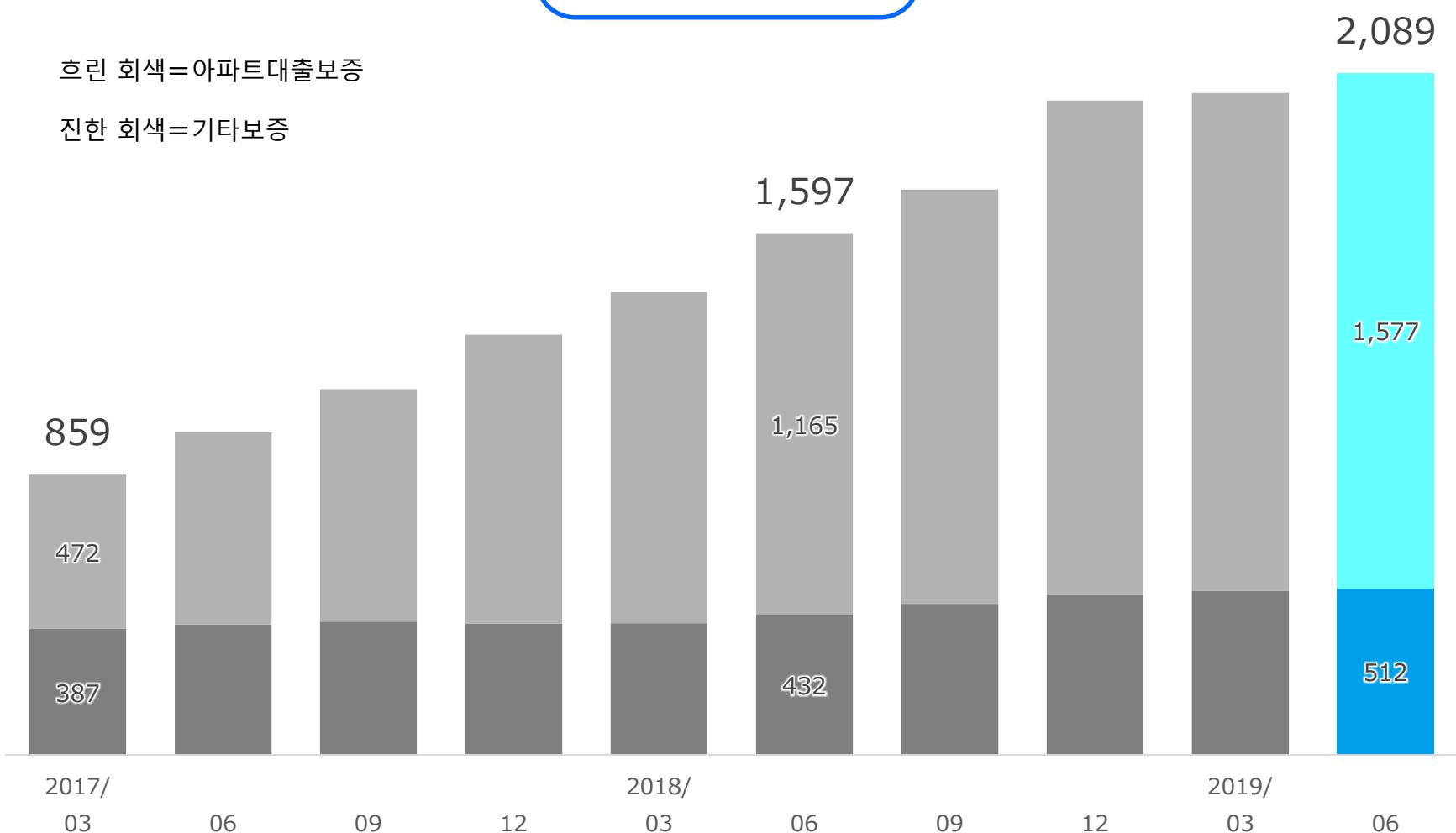
- 영업수익은 안정세
- 전기 종반부터 금기까지 매입한 채권에서의 회수금액이 이익에 기여



➤ 보증잔액은 전년동기대비 492억엔 증가

단위: 억엔

보증잔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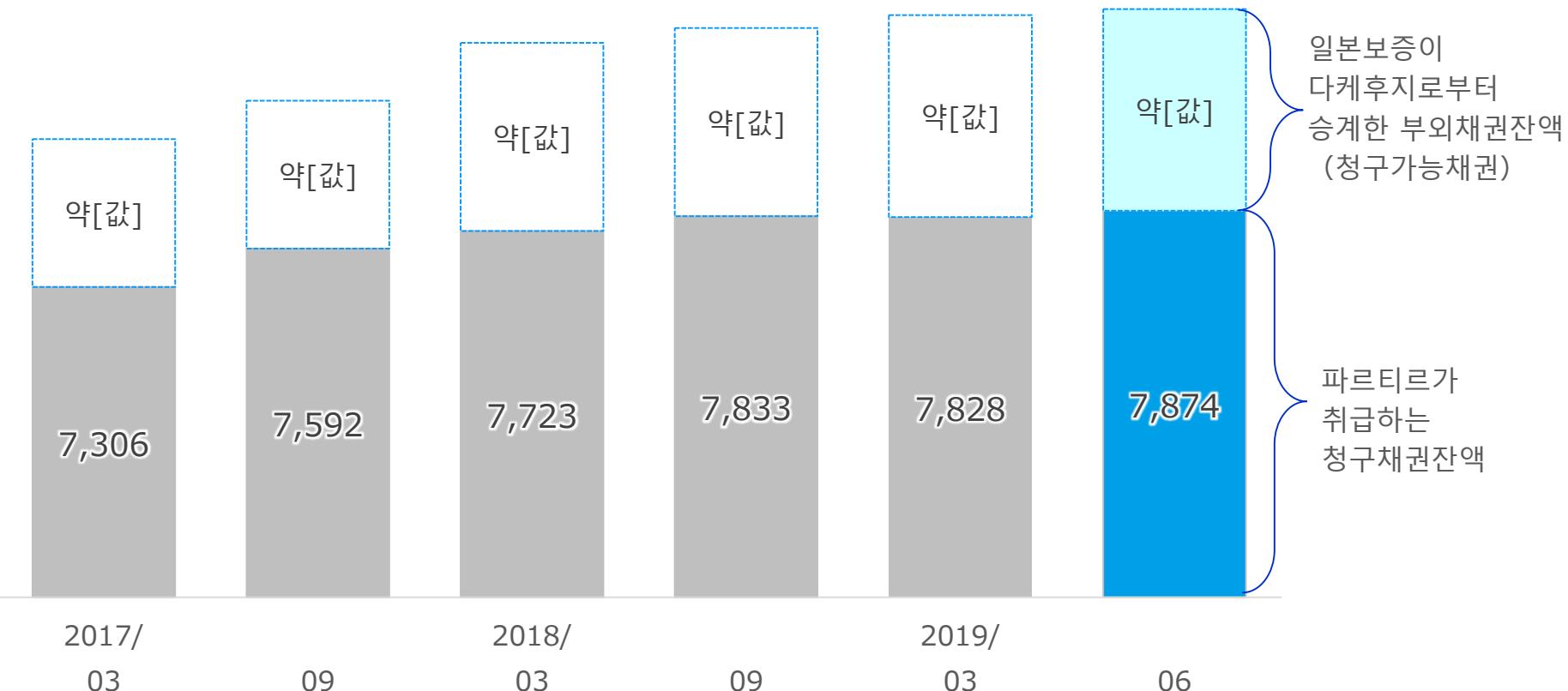


➤ 부실채권 매입은 호조세 지속

채권회수사업의 청구채권잔액

단위 : 억엔

합계
9,000억엔 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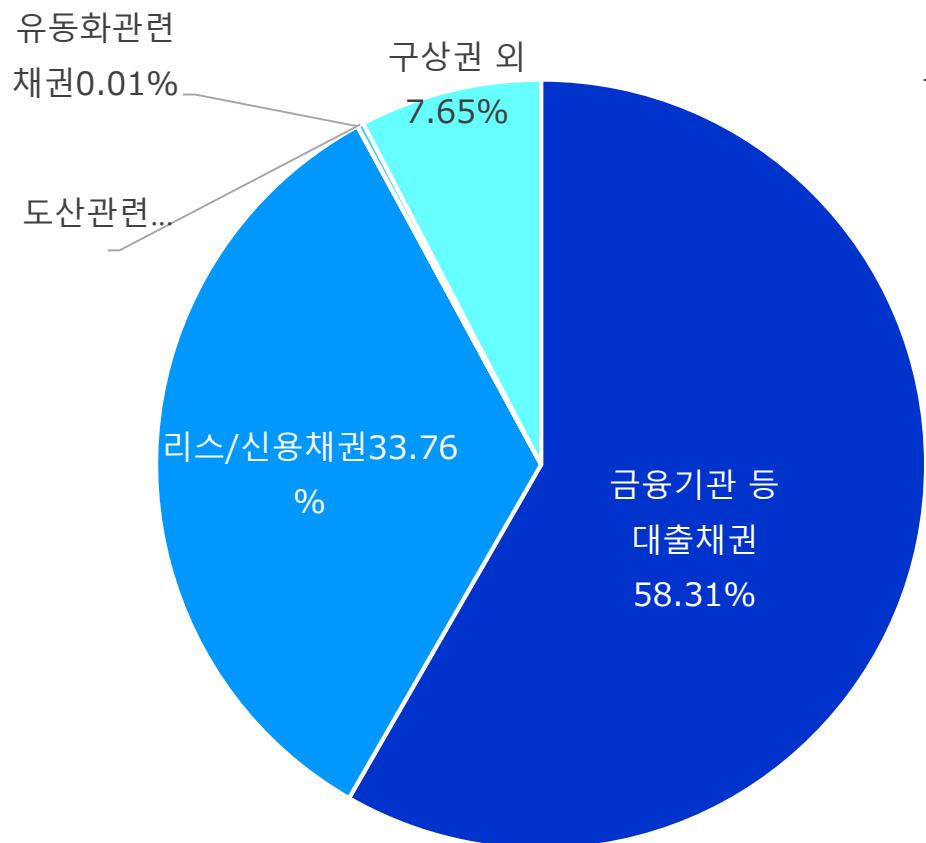


청구채권잔액은 매입채권 및 회수수탁채권 포함
청구채권잔액은 일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채권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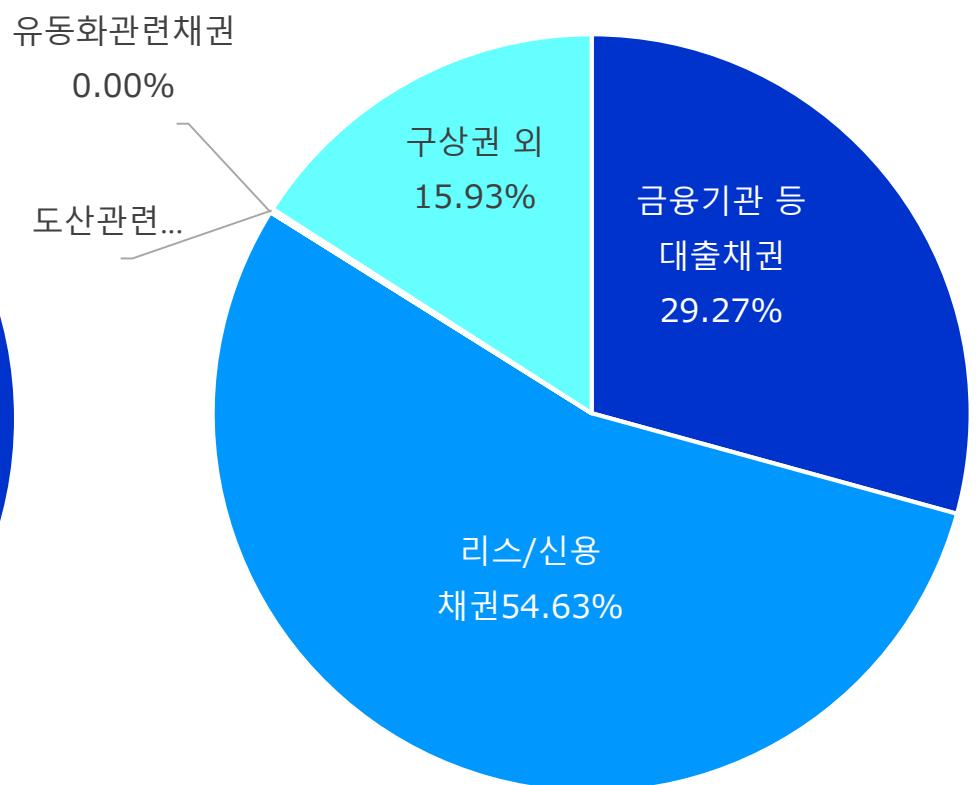
- 파르티르채권회수회사는 리스/신용채권이 과반수 차지
- 회수부문에서 특유의 강점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채권 매입과 회수 추진

채권회수회사에서 취급하는 채권비율명세

업계전체



파르티르채권회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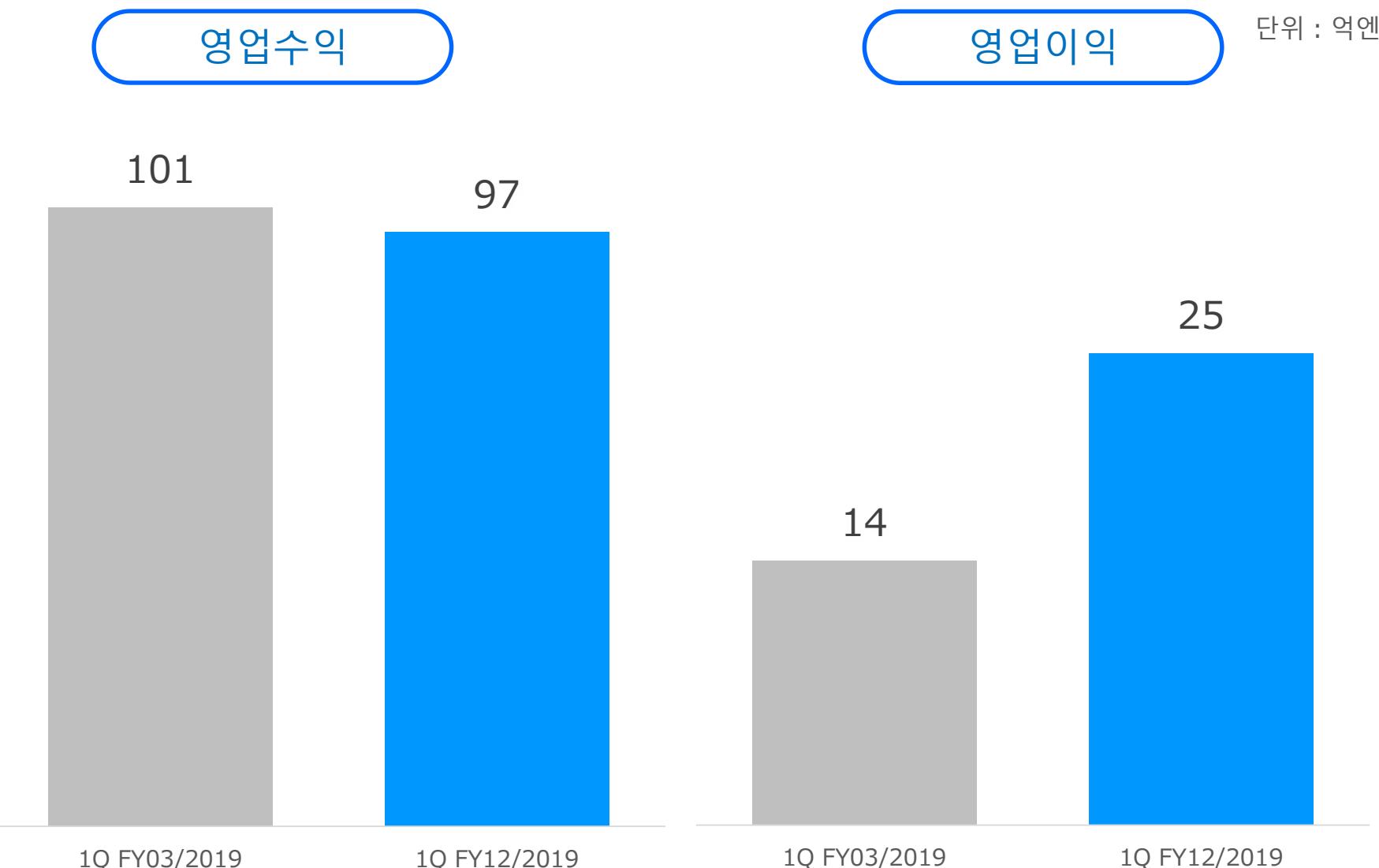
※업계전체 데이터는 법무성 자료. 2018년 12월 31일 현재

※파르티르채권회수 데이터는 2019년 6월 30일 현재

2. 부문별 실적

2 - 2.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

- 평균대출금리 하락으로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감소
-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감소 및 NPL매각이익 계상으로 영업이익은 증가



➤ 채권의 '질'을 중시한 안정적인 대출자산 유지

3개사 합계 대출자산 포트폴리오 및 90일 이상 연체채권 추이

단위 : 억엔

4,000

3,500

3,000

2,500

2,000

1,500

1,000

500

0

기업유담보

기업무담보

소비자유담보

소비자무담보

10.00%

8.00%

6.00%

4.00%

2.00%

0.00%



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JT캐피탈 3개사 합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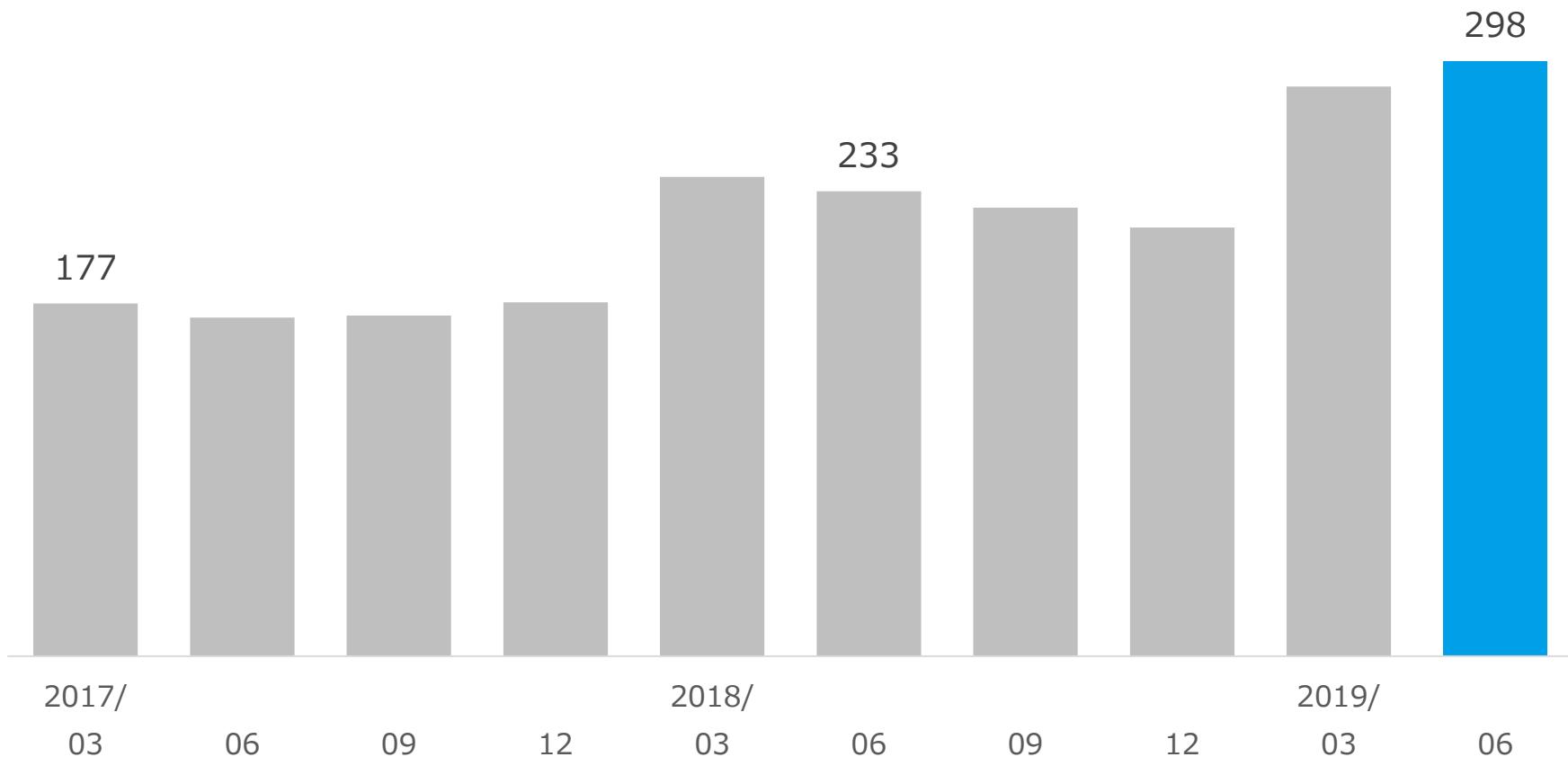
수치는 현지 통화에 아래 환율을 적용

참고환율 : 1원 = 0.0933엔 (6월말 결산일 환율)

➤ 채권회수회사의 부실채권 매입도 호조세

TA자산의 청구채권잔액

단위 : 억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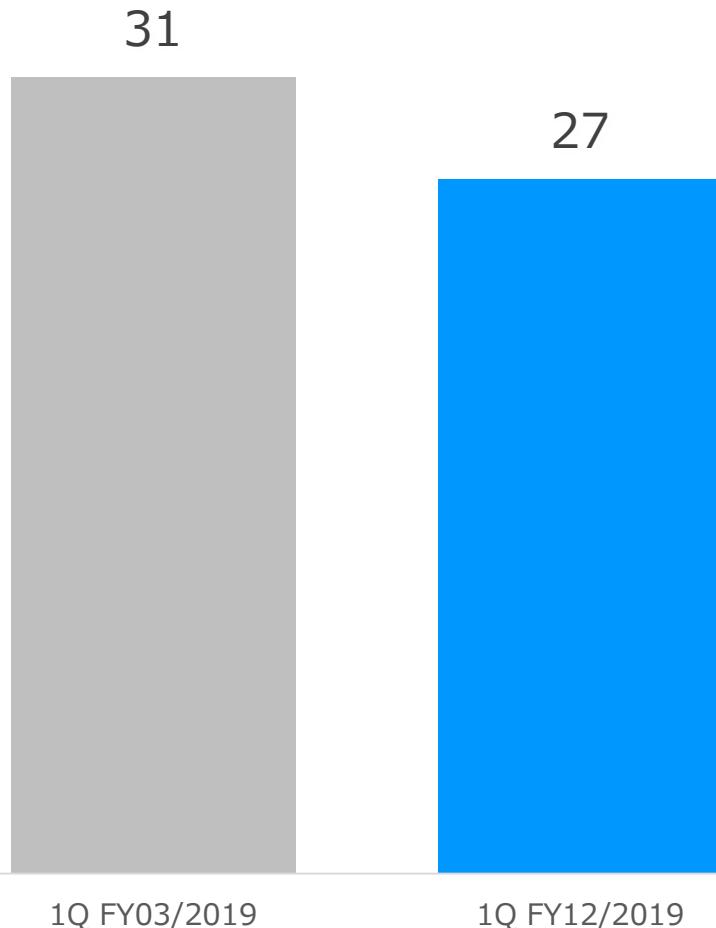
수치는 현지 통화에 아래 환율을 적용
참고환율 : 1원 = 0.0933엔 (6월말 결산일 환율)

2. 부문별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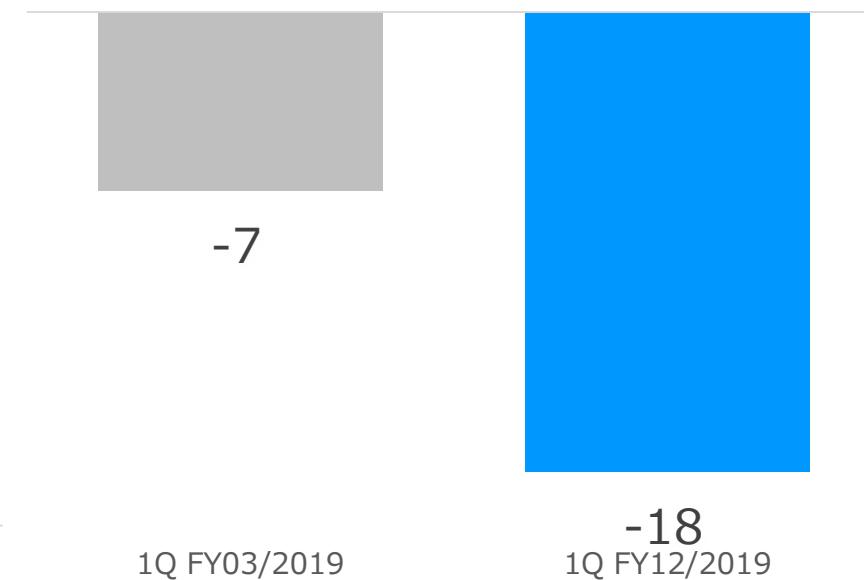
2 – 3. 동남아시아금융사업

➤ 전년동기대비 매출감소 이익감소

영업수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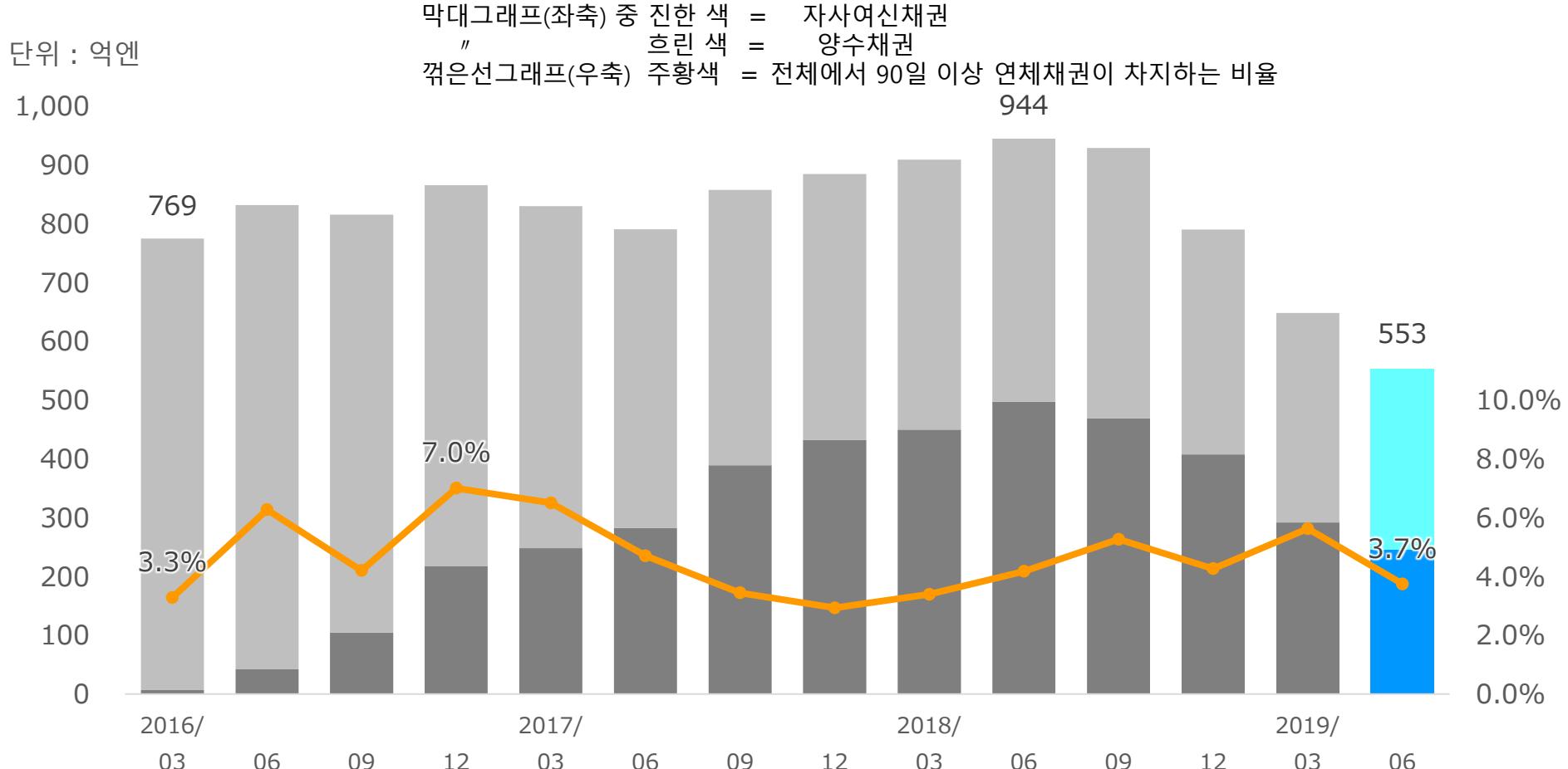


영업이익



➤ 하이리스크 대출 중지 및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잔액 감소

BJI : 대출자산 잔액과 90일 이상 연체채권 추이



수치는 현지 통화에 아래 환율을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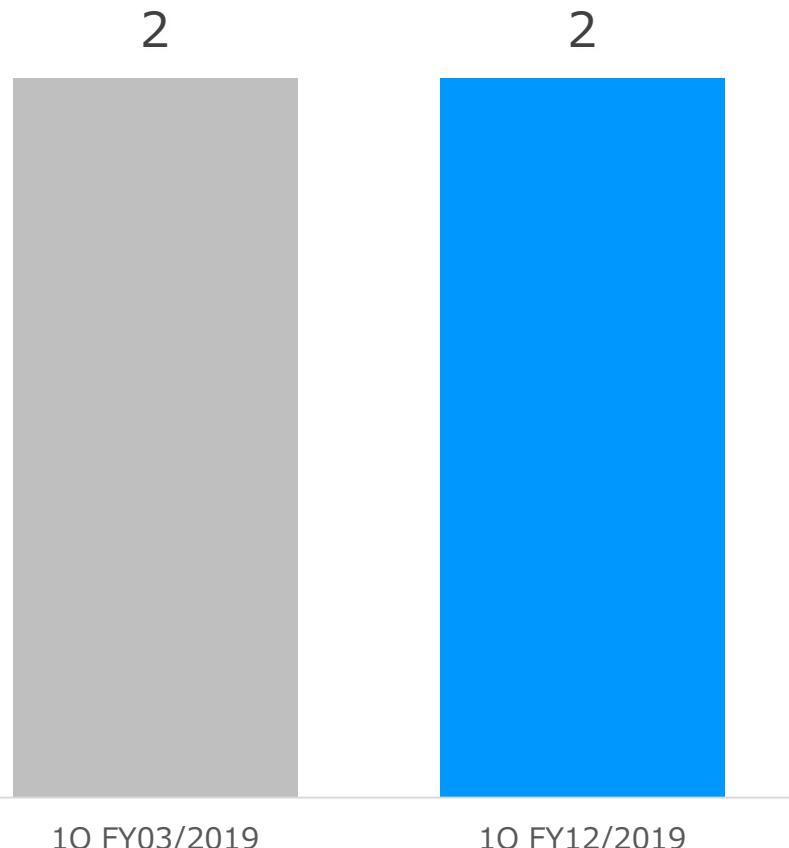
참고환율 : 1루피아=0.0077엔(6월말 결산일 환율)

2. 부문별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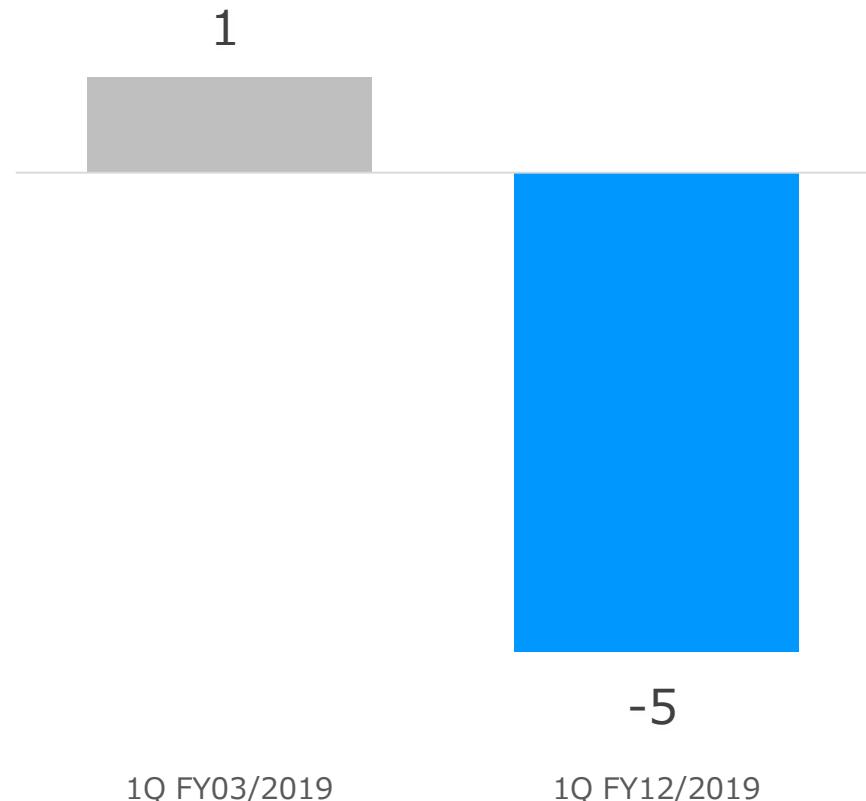
2-4. 투자사업

➤ 소송비용 증가에 따른 판관비 증가

영업수익



영업이익



단위: 억엔

2. 부문별 실적

2 – 5. 종합엔터테인먼트/부동산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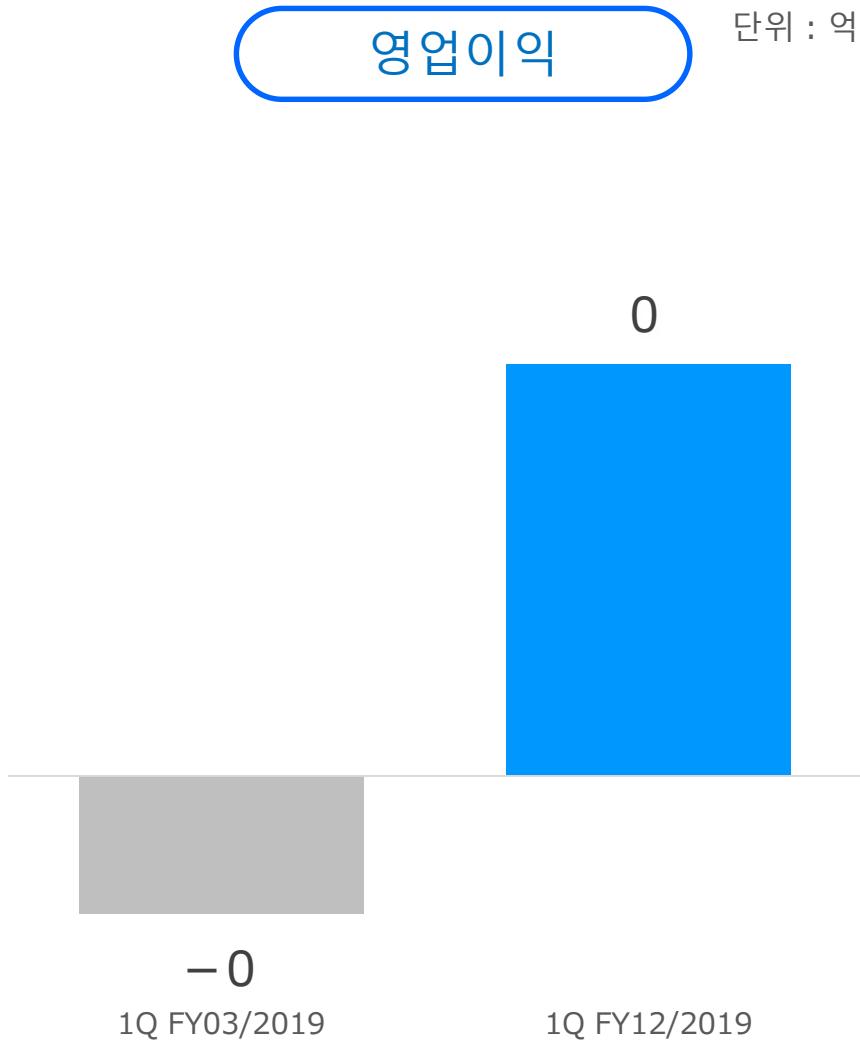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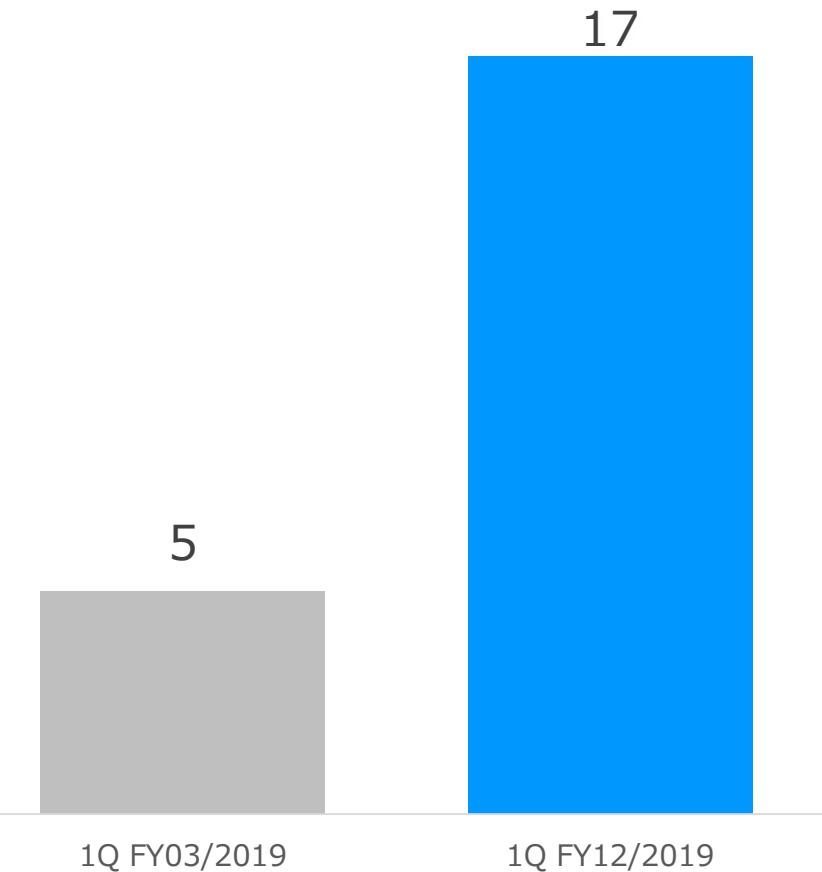
(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)

➤ Allfuz와 FOOLENLARGE^{*} 등의 M&A가 수익 및 이익에 기여

영업수익

영업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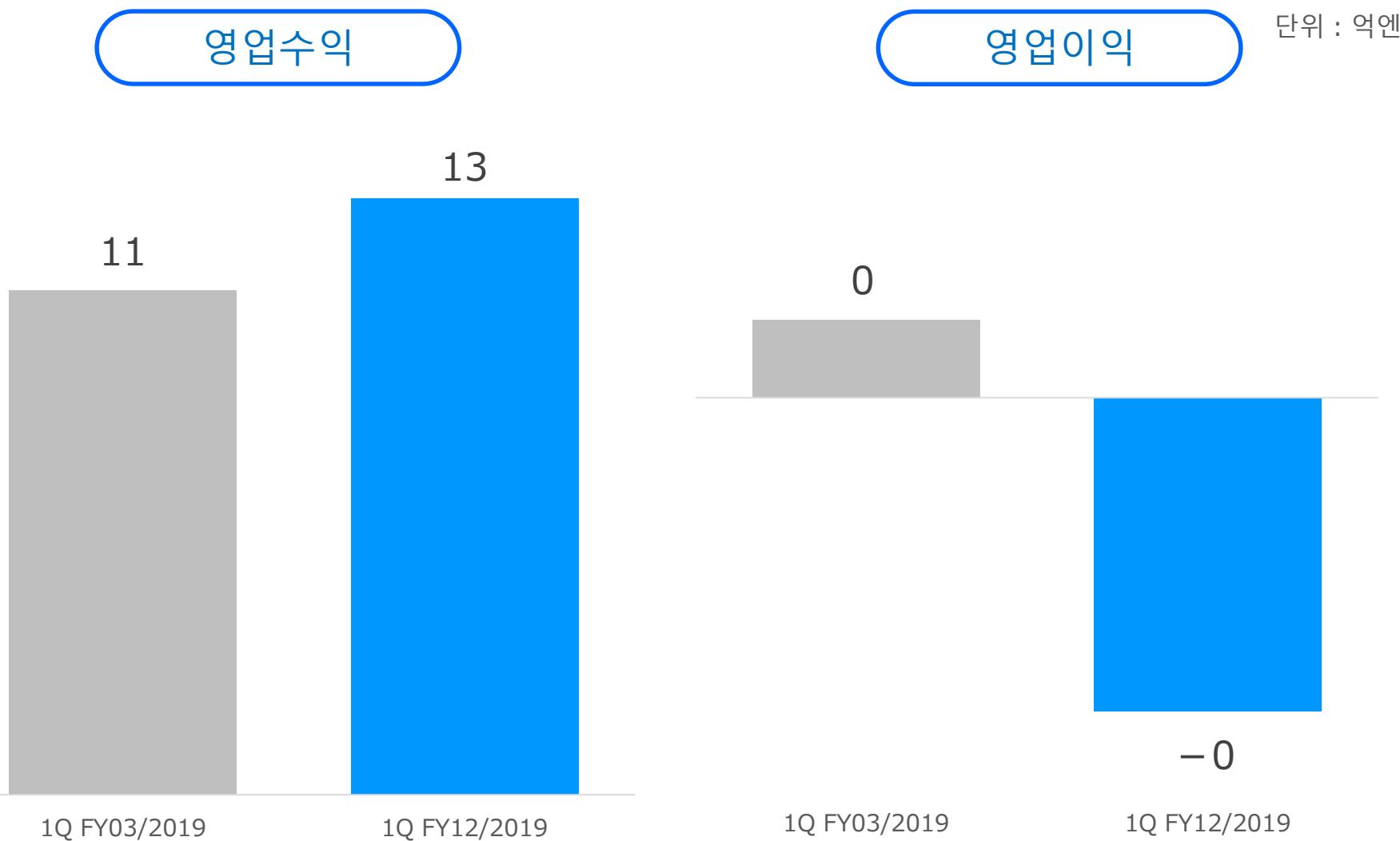
단위 : 억엔



*8월 1일자로 유나이티드 프로덕션스로 사명 변경

(부동산사업)

- 영업수익은 증가,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감소



3. 2019년 12월 결산 연결실적예상

➤ 연결실적예상 수립 시의 전제조건

- 환율은 각국 진출 시부터 2019년 3월말까지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.

1 싱가포르 달러 : 82.63엔 1 인도네시아 루피아 : 0.0084엔 1 몽골 투그릭 : 0.0473엔

1 한국 원 : 0.093엔

1 US달러 : 110.99엔

또한 2019년 6월말일 각국 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 싱가포르 달러 : 79.68엔 1 인도네시아 루피아 : 0.0077円 1 몽골 투그릭 : 0.0405엔

1 한국 원 : 0.0933엔

1 US달러 : 107.79엔

- 투자사업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익 이외의 영향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
➤ 부문별 실적예상 및 달성을

부문별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

	FY12/2019예상 ※4/1~12/31, 9개월	1Q FY12/2019 실적※4/1~6/30, 3개월	달성을
일본금융사업	영업수익 69억엔	23억엔	33%
	영업이익 29억엔	10억엔	34%
한국 및 몽골금융사업	영업수익 289억엔	97억엔	34%
	영업이익 33억엔	25억엔	76%
동남아시아금융사업	영업수익 129억엔	27억엔	21%
	영업이익 -17억엔	-18억엔	-
투자사업	영업수익 10억엔	2억엔	20%
	영업이익 -6억엔	-5억엔	-
기타/연결조정	영업수익 144억엔	31억엔	22%
	영업이익 -38억엔	-7억엔	-
합계	영업수익 643억엔	182억엔	28%
	영업이익 0억엔	4억엔	-

4. 사업별 향후 전망

상무이사 집행임원 재무부장
아쓰타 류이치

➤ J트러스트의 매력 재확인

- ✓ 은행·비은행권·채권회수회사 등 3부문을 '핵심사업'으로 하는 금융사업 중심
(해외진출국가 : 한국·싱가포르·인도네시아·몽골)
- ✓ 굳건한 재무기반
 - 총자산 : 6,240억엔
 - 지배기업소유주지분 : 1,096억엔
 - 지배기업소유주지분비율 : 16.3%
- ✓ 전기에는 잠재 리스크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계상으로 향후의 추가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
- ✓ 캄보디아 우량은행을 신규로 편입할 예정
- ✓ 각 지역의 경영체제 쇄신을 통한 최적의 포진 지향

➤ J트러스트 그룹의 10년 성장과정 재확인

- ✓ 2008년 TOB이후 사업내용 확대

2008년 이후 성장

2008년 3월말

2019년 6월말

자산규모	121억엔		6,240억엔
종업원수	81명		3,443명
회사수	2개사		35개사
진출국	1개국		5개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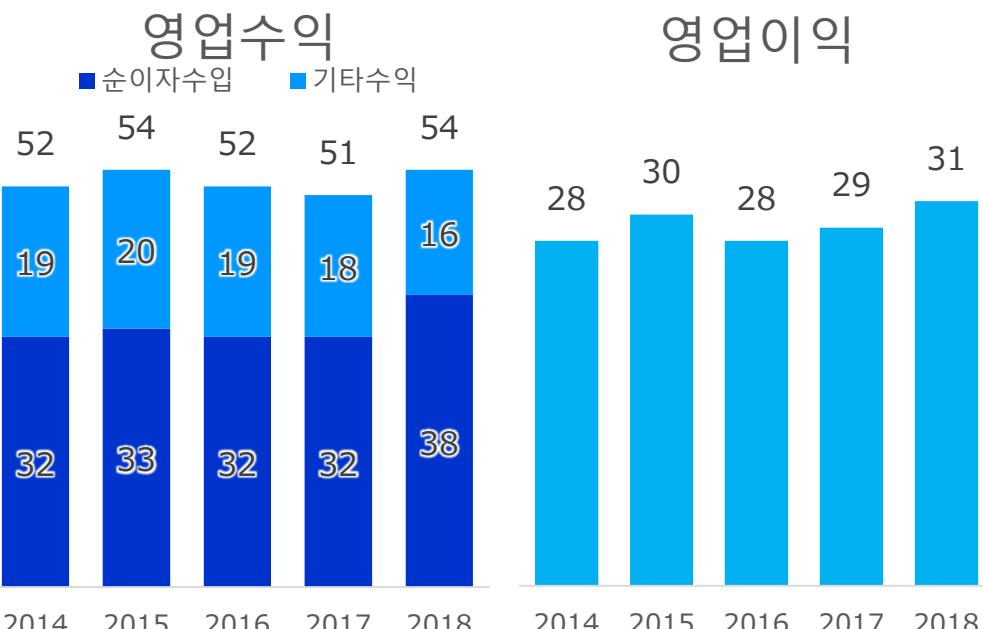
➤ 약 7%의 높은 GDP성장률을 자랑하는 캄보디아의 상업은행 취득 예정

- ✓ 캄보디아의 42개 상업은행 중 ANZR은행은 TOP 10에 들어가는 자산규모^{*}
- ✓ 2018년도 영업이익 31억엔으로 고수익 실현 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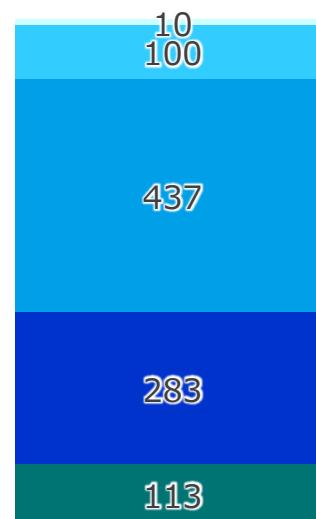
ANZ ROYAL Bank 재무실적

단위 : 억엔

이익 추이(5개년)



943억엔 자산 내역
(2018년 12월말)



*캄보디아 중앙은행 Annual Report 2018 자료

재무실적은 ANZ ROYAL BANK Annual Report 2018 자료

참고환율 : 1USD=107.79엔 (6월말 결산일 환율)

➤ J트러스트에서 은행 경영 전문가 파견

- ✓ ANZ Royal Bank의 강점은 법인거래
- ✓ ANZ Royal Bank 실적에 당 그룹사의 리테일 노하우를 접목
- ✓ 캄보디아는 그룹의 해외 진출 6번째 국가

묘친 토오루

구로카와 마코토

(※상호 및 디자인은 이미지)

1988년 다이이치간교은행(현
미즈호파이낸셜 그룹)입사
그 후 신세이은행에서 요직
역임, 2015년 J트러스트 합류

1979년 산와은행(현
미쓰비시UFJ은행)입사
그후 외국계증권회사를 거쳐
2012년 J트러스트 그룹 합류

➤ 일본금융사업 : 계속하여 보증상품 다각화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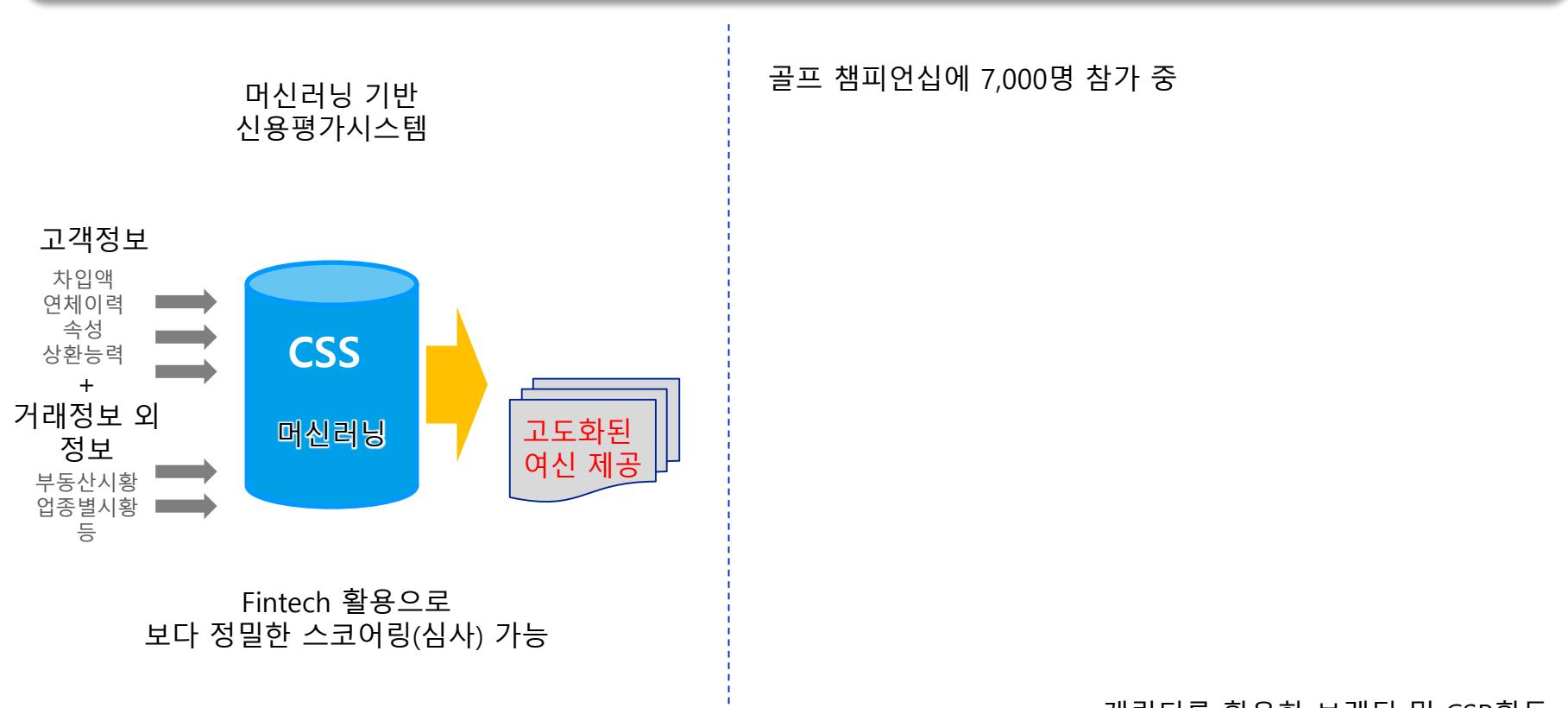
- ✓ 신규 보증상품으로 클라우드펀딩상품 보증 개시
- 일본보증의 강점인 부동산담보대출 보증상품 2개 출시
- ✓ 해외부동산담보대출 보증제휴은행도 증가하여 총 3개 은행과 제휴

- 2019년 5월 10일 공모시작
- 공모상한액 : 1,300만엔
(만액 달성)
- 약 40분 만에 완판

- 2019년 6월 4일 공모시작
- 공모상한액 : 2,300만엔
(만액 달성)
- 약 10분 만에 완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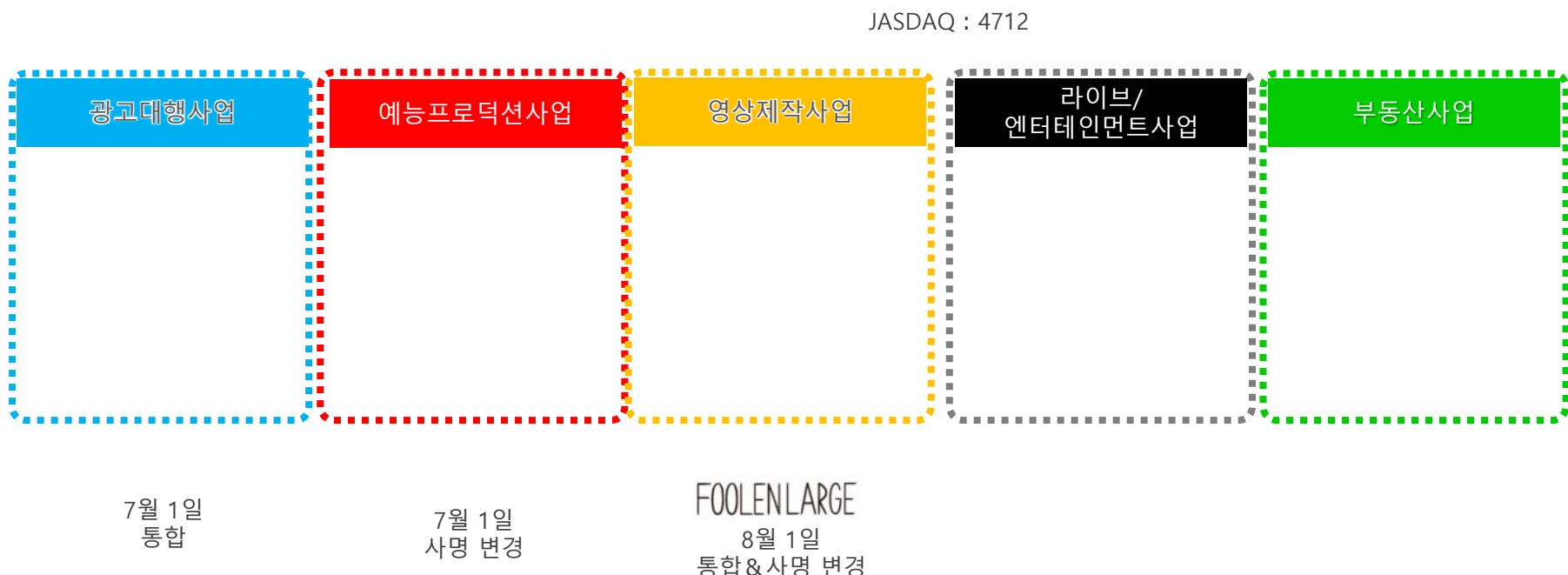
➤ 한국 및 몽골금융사업 : 법정최고금리 규제 강화 속에서도 높은 이익률 실현

- ✓ CSS(신용평가시스템)를 통한 고도화된 여신 제공으로 부실채권 방지
- ✓ 양질의 고객층 유입을 위한 마케팅활동 및 브랜드 전략 실시



➤ 종합엔터테인먼트사업 : 사업 정리를 통한 경영 효율화 추진

- ✓ 7월 1일 Allfuz와 KeyStudio 통합
- ✓ 8월 1일 KeyProduction과 FOOLENLARGE 통합 후 상호 변경



질의응답

감사합니다